

용산구, 복잡한 어르신 돌봄 '원스톱'으로 푼다

동주민센터 16곳에 전담 창구 설치... 상담·서비스 연계 의료·요양·주거 등 5개 분야 맞춤 지원·모니터링 지속 가족 대리 신청도 가능... 주말 돌봄 등 특화사업 추진

서울시 용산구가 어르신 돌봄 공백 해소 위한 '용산형 통합돌봄' 사업 본격 시행에 나섰다.

2일 용산구에 따르면 구는 16개 동주민센터에 전담 창구를 설치해 상담부터 신청, 개인별 서비스 연계까지 통합 지원 체계를 운영한다. 기존에는 어르신이 여러 기관을 방문해 각각 서비스를 신청해야 했지만 이제는 한 번의 신청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65세 이상 어르신 가운데 치매약을 복용 중이거나 신체 기능 저하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또는 거주지에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다. 신청은 가까운 동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본인 방문이 어려운 경우 가족 등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 후에는 사전 방문조사를 통해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연계 지원한다. 이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서비스의 효과성을 관리할 예정이다.

최종 대상자로 선정되면 △보건 의료 △건강관리 △요양 △일상생활 △주거 등 5대 분야에서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통합 지원받는다. 다만 모든 서비스가 일괄 제공되는 것은 아니며 대상자의 상황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가 선별 제공된다. 일부 서비스는 본인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다.

구는 통합돌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특화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대표적으로 △주말과 공휴일에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on)이음새 돌봄사

업' △낙상사고 예방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 중심의 '낙상 예방 홈케어 사업' △퇴원 환자의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는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 사업' 등이 있다.

특히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 사업'은 협약병원 치료 이후에도 연속성 있는 돌봄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구는 서울직접자병원과 순천향대 서울부속병원과 협력해 퇴원 전 단계부터 대상자를 발굴하고, 재가 생활로의 원활한 복귀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건강 취약계층의 식생활 개선을 위한 '방문영양사업'과 의사·간호사·운동사 등 전문 인력이 참여하는 '용산건강자문센터'를 통해 지역사회 기반 통합돌봄 체계를 강화한다.

박희영 구청장은 "용산구는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19%를 넘어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다"며 "늘어나는 돌봄 수요에 대응해 어르신들이 익숙한 생활 공간에서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촘촘한 통합돌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영호 기자 yh7news@gmail.com



용산구 한 동주민센터에서 주민이 '용산형 통합돌봄' 사업에 대해 안내를 받고 있다. 용산구



군포시와 청년공간 플라잉이 '2026년 청년성장프로젝트' 참여자를 모집한다. 군포시

군포시, 청년 630명 성장 돕는다 취업역량 강화 등 5개 분야 지원

경기도 군포시와 청년공간 플라잉이 지역 청년의 진로 탐색과 취업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2026년 청년성장프로젝트'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이 프로젝트는 진로 탐색부터 취업 준비, 일경험까지 단계별로 지원하는 청년 맞춤형 성장지원 사업으로 지난해부터 사업을 추진하여 570여 명의 청년을 지원했다. 올해는 총 39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약 630명의 청년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취업 역량 강화 △진로 멘토링(커피챗) △인공지능(AI) 일경험 지원 △심리지원 △일상 및 네트워크 지원 등 5개 분야로 구성되며 일대일 초기상담을 통해 청년의 상황과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참여 대상은 15세부터 39세까지의 청년이며 프로그램별 세부 일정 및 신청 방법은 군포시 청년공간 플라잉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군포=백동기 기자 dkbail@skyedaily.com



안산시 1일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인 권교육을 실시했다. 안산시

안산시, 장기요양기관 인권교육 대표·종사자 등 200여 명 대상

경기도 안산시가 1일 상록구청 상록시 민회에서 장기요양기관 대표자와 종사자 200여 명을 대상으로 '장기요양기관 인권교육'을 진행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노인 인권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어르신을 존중하는 돌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은 경기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소속 전문 강사가 진행했으며 주요 내용은 △장기요양기관 내 인권 보호의 중요성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 사례와 예방 방안 등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안산시는 현재 326개소의 장기요양기관이 운영되고 있다. 이번 교육은 현장에서 어르신을 직접 돌보는 종사자의 인권 감수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이민근 시장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어르신들이 존엄과 권리를 지키며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며 "장기요양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인권 보호와 돌봄 환경 개선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시는 앞으로도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인권 인식을 높이고, 어르신의 권리가 존중되는 돌봄 문화가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과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안산=백동기 기자 dkbail@skyedaily.com

탄천따라 이팝나무 흰 꽃 활짝... 송파구 '매력정원' 조성

5월 말까지 수변 3.3km 구간에 이팝나무 400주 식재 생태복원 중심 정비... 라일락·수국 등 볼거리 강화

서울시 송파구가 5월 말까지 탄천변 3.3km 구간에 생태복원과 경관 개선을 결합한 대규모 정원을 조성해 수변 휴식공간 확충에 나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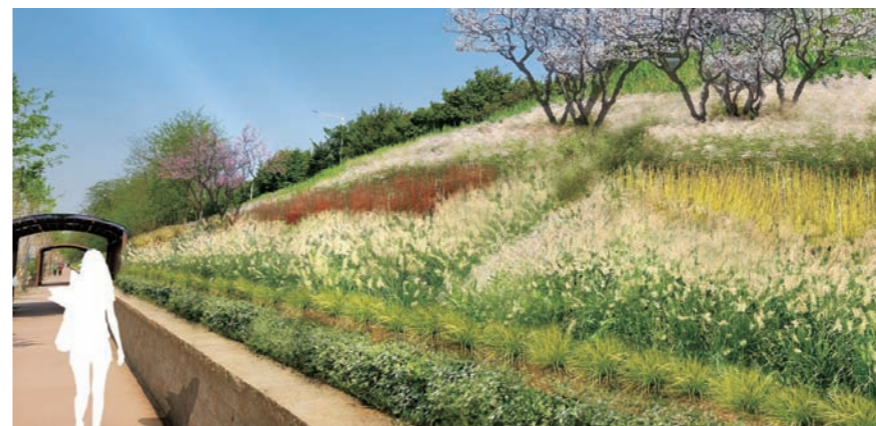
2일 송파구에 따르면 사업 대상은 녹음이 부족한 송파둘레길 탄천 구간이다. 구는 주민들에게 그늘과 경관을 함께 제공할 수 있도록 탄천변 일대를 정원형 수변 공간으로 재편할 계획이다.

앞서 구는 2024년 탄천에 이팝나무 400주를 심어 송파둘레길 탄천 구간에 서울

에서 가장 긴 이팝나무길을 조성했다. 이팝나무는 여름철 그늘을 제공하고, 개화기에는 흰 꽃길 경관을 형성한다.

올해 정비는 생태복원에 초점을 맞췄다. 제방사면에 무분별하게 자라 안전에 우려가 있는 아까시나무를 정비하고, 한삼덩굴·가시바·단풍잎돼지풀 등 생태계 교란 식물을 제거한다.

또, 야생동물의 먹이가 되는 수목을 식재하여 하천생태계를 복원하고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수변생태계를 구축할 계



송파구가 탄천변 일대를 이팝나무길과 제방숲, 야생화정원을 연계한 정원형 수변 공간으로 조성한다. 송파구

획이다. 탄천 둘레길은 3.3km 이팝나무길 하부에 향기 가득한 라일락, 은정색 잎이 매력

적인 블루엔젤, 붉은 단풍이 물드는 남천, 한결같이 푸르른 사철나무, 화려한 수국과 빨간 줄기가 강렬한 흰말채까지 다양

한 나무들을 식재하여 볼거리 가득한 정원으로 꾸밀 예정이다.

제방사면은 호안의 기능을 유지한 채 코코넛 섬유를 활용한 자연 친화적인 식재 기반을 만들고 물억새·수크령 등이 어우러져 신비로운 분위기를 연출한다.

또 탄천1교~탄천2교 진출입로에는 다양한 수종의 꽃을 심어 야생화 정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송파구 관계자는 "탄천 수변을 따라 이 어진 이팝나무길과 녹음 가득한 매력정원 조성으로 구민들 일상에서 힐링과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영호 기자 yh7news@gmail.com

마포구, 스마트팜 5개소로 확대... '효도밥상' 식재료 공급

망원동에 체험관 구축 완료 동주민센터 3곳 옥상 활용 딸기·방울토마토 연중 생산

서울시 마포구가 망원동에 스마트팜 체험관을 구축하고 아현동·서강동·연남동 동주민센터 옥상에 스마트팜을 조성해 2일 준공식을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구민이 도심에서 미래농업을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는 기반을 넓히고 도시농업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스마트팜은 농업과 인공지능(AI)을 결합한 형태로 기후변화와 관계없이 채소 등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미래산업으로 꼽힌다.

구는 2023년 구청사 1층에 스마트팜 시설을 선제적으로 조성해 바질과 상추 등 엽채류를 재배·운영해왔으며 이번 준공을 계기로 스마트팜을 총 5개소로 확대했다.

망원동 망원1-2공영주차장 지상부에 조성된 '스마트팜 체험관'은 연면적 약 240㎡ 규모로 마련됐다. 체험관은 수직형 식물공장과 스마트온실을 결합한 형태로, 실내의 환경 제어를 통해 계절과 날씨에 관계없이 안정적인 작물 재배가 가능하다.



박강수 마포구청청과 어린이들이 청사 내 스마트팜 채소를 관찰하고 있다. 마포구

이곳에서는 버터헤드와 카이퍼라 등 엽채류를 비롯해 딸기와 방울토마토 등을 연중 생산할 수 있다. 특히 수직농장에서는 약 6주 주기로 작물을 수확할 수 있어 안정적인 생산이 가능하다는 게 구의 설명이다. 체험관은 작물 생산환경 조성 등 시범운영을 거친 뒤 구민에게 개방될 예정이다.

아현동·서강동·연남동 3개 동주민센터 옥상에도 각각 약 50㎡ 규모의 스마트팜이 조성됐다. 이들 시설은 엽채류 중심 재배가 이뤄지며 외부 환경 영향을 최소화해 안정적인 작물 생산이 가능하도록 설

계됐다. 마포구는 스마트팜 사업이 체험형 도시농업에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와 연계한 나눔 문화 확산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생산된 농산물은 마포구 특화사업인 '효도밥상'과 사회복지시설 등에 식재료로 공급될 예정이다.

박강수 구청장은 "도심의 유휴공간을 활용해 미래 농업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도시농업 정책을 통해 구민 삶의 질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영호 기자 yh7news@gmail.com

서초구, 적십자봉사회 18개 전 동으로 확대 봉사원 235명 규모... 돌봄 네트워크 구축

서울시 서초구가 1일 구청 대강당에서 '서초구 동 적십자봉사회 합동 결성식'을 열고 전 동 단위 봉사조직을 구축하며 지역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돌봄체제 강화에 나섰다.

2일 서초구에 따르면 이번 결성으로 동 적십자봉사회는 기존 10개 동에서 18개 전 동으로 확대됐다. 봉사원 규모도 109명에서 235명으로 늘어나 개척 이래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신규 봉사원 126명이 추가되며 지역 전반을 아우르는 봉사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결성식은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시지사 남동봉사관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전성수 구청장과 신동욱 국회의원, 권영규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회장 등 관내 국제적십자운동 기본원칙 낭독을 시작으로 봉사회장 선임증 수여, 봉사원 서약 낭독, 기념 케이크 커팅, 적십자 노래 제창 등이 이어졌다.

특히 신규 봉사원들이 적십자 조끼와 배지를 받은 뒤 레드 카펫을 따라 입장하면 기존 봉사원들이 양옆에서 환영하는 '적십자 봉사원의 길' 퍼포먼스가 진행돼 봉사활동의 시작과 인도주의 정신을 상징적으로 표현했다. 이날 결성된 봉사회는 지역 복지에 관



서초구가 적십자봉사회 전동 확대 돌봄체제 구축에 나섰다. 1일 전성수(왼쪽) 구청장이 신규 적십자 봉사원에게 노란 적십자 조끼를 입혀주고 있다. 서초구

심 있는 주민들로 구성됐다. 봉사원들은 앞으로 취약계층 방문과 물품 지원, 제빵 봉사, 기업 연계 사회협약 활동 등 다양한 공공복지 사업을 수행할 예정이다. 구는 동 적십자봉사회를 일회성 활동이 아닌 지속 가능한 인도주의 협력 모델로 운영하기 위해 그동안 교육과 봉사 프로그램을 병행해 왔다.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멘토·멘티 교육과 설맞이 제빵 봉사, 적십자 특별회비 전달, 신규 봉사원 기본교육 등을 진행했다.

이번 조직 확대를 계기로 구는 자원봉사 캠프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동 직능단체와 연계한 돌봄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자원 연계, 결연세대 지원 등 지역 밀착형 복지 활동을 체계적으로 추진한다. 최영호 기자 yh7news@gmail.com